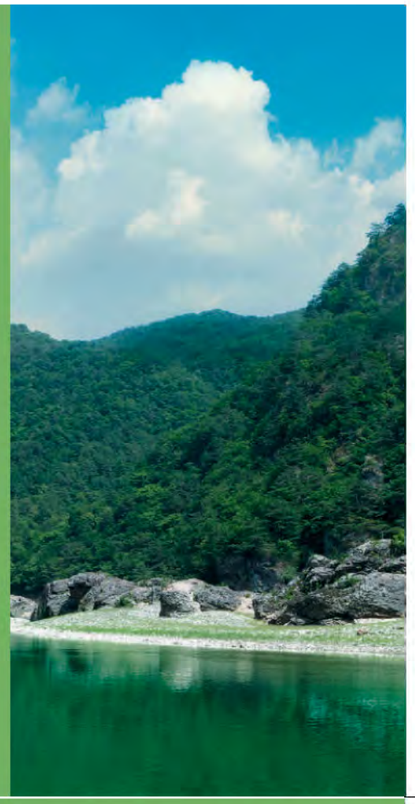
전통교회 제자훈련 접목의 정석, 또 한 번 강산이 변할 10년을 기대한다



남창우 목사가 1954년 2월 14일 창립되어 52년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에 35년을 목회하신 원로목사의 뒤를 이어 4대 목사로 부임한 1996년이었다. 당시 장충교회는 아날로그 시대의 속도와 디지털 시대의 속도, 그 현기증 나는 차이를 감당하지 못해 혼란 가운데 있었다.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영화감독이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450석 규모의 장충교회를 사용하려는 장소 섭외가 들어올 정도로 장충교회는 유서 깊은 교회였다. 교인 구성 비율을 볼 때 6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임 당시 장충교회는 2년간 담임목사가 공석이었으며, 통합과 합동교단이 나뉠 때 기독신문사가 장충교회당 안에 위치해 있었을 정도로 합동교단을 지켜내었다는 정치적 프라이드가 강한 교회였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장충교회도 강산만큼이나 변했다. 1996년 부임 당시 장충교회의 장년 평균 출석은 700여 명이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현재 장충교회의 장년 평균 출석은 1,400여 명에 그 구성비율도 50%가 2~30대로 변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장충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인 '중구'의 캐치프레이즈는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였다. 그만큼 도심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강산만큼 변해온 10년

서울시가 제공하는 구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외국인 제외)에 따르면, 2001년 중구의 인구는 143,016명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131,971명으로, 4년 사이 1만 천여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장충교회가 이루어낸 배가의 성장은 절대로 폄하할 수 없는 열매임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제자훈련에 헌신해온 결과 제자·사역훈련 수료생 240명이 배출되었다. 이제 남창우 목사와 목회철학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손과 발이 되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제자들이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능동적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의 소그룹은 재정비되어 148개의 소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성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맛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기성교회에 제자훈련 목회를 접목시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이루고 성장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건강한 구조로 갱신되어 온 장충교회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장충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 않은 기성교회의 제자훈련 접목의 비결은 무엇일까?

'성공비결'이란 것이 모두 그렇듯 남창우 목사는 전통적인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할 때 취해야 할 기본 정석을 그대로 따랐다. 하나하나 전통적인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하는 기본 정석의 관점으로 장충교회의 지난 10년을 되짚어 보자.

정석 1: 부임 전에 언약하라

남창우 목사는 대학교 3학년 때 지휘자로 충현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해 충현교회에서 결혼하고, 목사가 되어 5년 동안 봉사했다. 그러던 중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를 읽고,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흠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충현교회에서 목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는 참여할 수 없었고, 송구영신 예배 때 사랑의교회 예배에 참여해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후 미국 애틀랜타에 유학을 간 남 목사는 150여 명이 모이는 이민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고 공부를 시작했다. 얼마 후 부교역자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남 목사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다. 그러나 교회를 깨뜨릴 수 없어 곧바로 사표를 던지고, 2개월 동안 쫓아다니며 애원하는 성도들을 피해 다니기도

남창우 목사

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사랑의교회의 개척시절부터 옥한흠 목사에게 훈련받고 섬기다 애틀랜타로 이민을 간 송남규·신미라 집사 부부였다.

남 목사에게 함께 사랑의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개척해 보자고 고집스럽게 요청했던 송 집사 내외가 하루는 하와이에서 요양하고 있던 옥한흠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남 목사를 혼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옥 목사는 오히려 남 목사를 격려해주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3개월 후, 옥한흠 목사는 요양을 끝내고 귀국하며 남 목사에게 '수석 행정 부목사'로 함께 사역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게 되고, 결국 남 목사는 5년간 사랑의교회에서 제자훈련 목회를 임상해 보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키워가게 된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난 배경과 사랑의교회에서 준비된 제자훈련 목회로 균형 있게 준비되어 가던 남 목사에게 변화의 때가 왔다.

분란으로 인해 35년간 섬겨온 원로목사가 사임하고, 2년이 지나도록 담임 청빙을 하지 못한 장충교회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남 목사를 찾아와 울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 목사의 마음이 동해 장충교회로의 부임을 결정했던 것이다.

옥한흠 목사도 처음에는 "그 교회 가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남 목사가 마음을 굳히고 결심이 서자 장로들을 청해 제자훈련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부임 전에 제자훈련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둔 남 목사는 부임 후, 곧바로 제자훈련에 돌입할 수 있었다.

정석 2: 존경하지는 못하더라도 존중하라

그렇게 시작된 첫 장로 제자반 수료식 때, 장로님 한분이 간증을 하면서 우셨다. "나는 언제나 선거 때면 1번만 뽑아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변화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번도 뽑으라면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 목사는

이 간증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읽어내게 되었다고 한다.

"당회원들은 아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늘 같이 지내야 하지요. 장로님들이 슬프면 저도 슬프지요. 잘못해줘도 잘해줘도 투덜거리고 때론 권태기를 겪는 것이 꼭 마누라와 같아요. 그만큼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지요."

남 목사는 목회를 하는 동료와 후배들에게도 늘 열에 서넛은 장로들에게 져주라고 권면한다.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본질에 대한 부분은 더디 가더라도 양보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장로님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존경하지는 못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남 목사는 장로제자반을 통해 기성세대가 헌신해 일구어온 목회의 열매를 존중하면서 제자훈련 목회로의 변화를 위한 토양을 준비해 갔다.

정석 3: 성장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

우리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기성교회의 목회자 한 사람이 설교와 목양의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제자훈련은 많아야 2~3개 반이다. 그 이상을 넘어설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목회일정을 소화하지 못해 탈진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기성교회에 부임한 담임목회자는 지속적으로 제자훈련생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초대교회의 예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작은 예수로 훈련되고 헌신된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가 있었기에 하루에 삼천 명, 오천 명의 제자가 더해지는 상황에서도 성장을 건강하게 소화해 낼 수 있었다.

남 목사는 부임 첫해, 장로반과 함께 7명의 전임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훈련된 부교역자들에게 제자훈련을 맡기고, 사역훈련에만 집중했다. 부교역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제자훈련을 이끌어갈 교역자들이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 친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성장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정석 4: 두 걸음만 앞서가라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한두 걸음만 앞서 나아가야 한다. 새로 담임목회자의 자리에 부임한 목회자의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이다. 마음은 벌써 다섯 걸음, 열 걸음 앞을 향해 달음질하고 있고, 미래 목회의 청사진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아직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장충교회의 강단은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강대상 좌우에는 성가대원들이 구두를 신은 채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강대상 주변은 나무 바닥으로 구별되어 구두를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는 장충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잔뼈가 굵은 장년 세대가 갖고 있는 강대상의 권위와 구별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디자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 목사는 아직도 주일 1 · 2부 예배를 드릴 때는 가운을 입고 설교한다. 3 · 4부와 달리 장년 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1 · 2부 예배의 참석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더디 가더라도 가급적 모두를 품고 가는 길을 택한 남 목사의 해법은 전통교회를 담임한 목회자들이 붙들어야 할 기본 정석 중의 정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석 5: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접근법을 사용하라

전통교회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사연과 역사가 곳곳에 배어 있다. 하다못해 강대상 하나, 샹들리에 하나에도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 부임한 후임 목사가 자신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시작하면, 새로 시집 온 며느리와 묵은 살림살이에 정이 붙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남 목사는 이런 문제들을 완급을 조절해 가며 지혜롭게 해결했다. 그 좋은 예가 전도회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기존의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교제하는 전도회 조직을 없애는 '마이너스' 접근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도회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계속해서 '플러스' 해 감으로써 전도회 조직보다 더 나은 구조로 자연스레 이동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말 정기총회에서 교회의 핵심인력으로 자리 잡은 제일 낮은 연령대의 남전도회(디모데)와 여전도회(에스더)가 자체 해산을 결의하게 되었다. 부임 후 10년간 '플러스' 접근법으로 일관해 온 남 목사의 인내가 가져다준 작은 열매였다.

남창우 목사는 전통교회 문제들의 완급을 조절해 가며 지혜롭게 제자훈련을 했다. 그 좋은 예가 전도회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계속해서 '플러스' 해 감으로써 전도회 조직보다 더 나은 구조로 자연스레 이동하도록 했다.

정석 6: 사람이 준비 안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면 이전의 방식대로 일하게 되고, 이전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재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부임초기 제자훈련을 받을 만한 남자 성도들은 모두 다 직장생활에 바빴고, 여자 성도들 중에서도 맞벌이로 생업현장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적잖았다. 이른바 소그룹 지도자로 섬길 만큼 '똘똘한' 성도들은 거의 모두 직장과 생업에 매여 있는 상황이라 가용인원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IMF 이후 한국경제가 저성장시대에 돌입하면서 더 심각해졌다.

그러나 남 목사는 서두르지 않았다. 소그룹 명칭을 '구역'에서 '순모임'으로 바꾸는 것도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준비될 때까지 6년이나 기다렸다. 사람들이 준비되는 동안 기존의 구역장들을 존중하면서 훈련된 일꾼들이 배출된 만큼만 순모임으로 전환시켜 나갔다.

그 결과 이제는 훈련된 소그룹 지도자가 이끄는 양육 중심 순모임이 68개,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부부 순모임이 28개, 거리적으로 또는 생업의 이유로 정기적으로 모여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삶을 나누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목양 순모임이 49개, 도합 145개의 소그룹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

정석 7: '이론 전문가'가 아닌 '현장 전문가'로 만들라

훈련된 평신도들이 사역하지 않으면 담임목회자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훈련을 통해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워 놓으면 목회자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준비된 일꾼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해 영적 전장의 치열함을 느끼게 하고 전투경험을 쌓게 하면, 그들은 단순히 목회자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역하는 '목양적 전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따라서 제자훈련을 교회에 접목하는 교역자는 훈련된 성도들이 마음껏 사역하며,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사역지를 개발시켜 줘야 한다.

일차적으로 남 목사는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소그룹 지도자로 세워 목양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 또한 2000년에는 약수동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 남산타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 물통전도에 헌신했다.

5월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된 남산타운 물통전도에는 4년 동안 훈련된 평신도들이 모두 헌신해 직장을 다니는 남자 성도들은 저녁 시간에 포천 수양관에서 1급 정수를 길어 왔고, 교역자들은 새벽 3시부터 전도하기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새벽기도를 마친 권사들이 10시까지 그 자리를 지켰으며, 훈련된 여성도들이 전도대가 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입주민들을 전도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150가정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훈련된 평신도들이 치열한 전도의 현장에서 '현장 전

문가' 로 거듭난 것은 전도된 150가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질적 수확이었다. 이로 인해 제자 · 사역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고, 온 교회가 훈련목회의 저력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의 대 반전이 일어났다.

또한 교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받은 남산타운 내 상가 건물을 통해 주중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제키 스쿨' (Jesus's kids school)을 열었다. 제키 스쿨은 아파트 인근의 2,000여 세대의 영세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방과 후 교실이다. 글쓰기 교실, 컴퓨터 교실, 미술 교실, 음악 교실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강사진은 모두 전문 자격을 갖춘 장충교회의 훈련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남 목사는 교회 내 전도의 은사가 있는 10%를 대상으로 장충 PET(Prayer Evangelism Trio-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장충 PET에 헌신한 40여 명의 사역훈련 수료생들은 구령의 영적 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목회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다.

정석 8 :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리더는 '할 수 있는 일' 보다는 '해야 하는 일' 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이다. 남 목사는 장충교회에 부임한 이후 많은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했다. 35년간 심방목회에 집중했던 원로목사가 사임한 이후, 2년간 담임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 담임목사가 부임했으니 그 영적인 기대치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러나 장충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리더로 세움 받은 남 목사는 꼭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야 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자 "담임목사가 돈 많은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만 좋아한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목자의 사랑에 굶주린 양 떼의 속성상 당연히 예상한 반응이었다.

남 목사에게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은 부교역자에게 맡길 수 없는 담임 목사가 꼭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데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그래서 훈련에 들어오지 못하는 평신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찾아 실천에 옮겼다. 먼저 설교에 목숨을 걸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양질의 꼴을 먹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교역자들이 심방을 다녀오면 꼭 심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남 목사는 심방보고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읽었고, 특별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을 돌봤다. 또한 행복한 모임(노인대학)을 만들어 잘 대접하고, 똑같이 순모임을 하도록 했으며, 행복한 모임의 순장은 남 목사가 직접 맡아서 가르치고 관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 목사는 자신이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다.

정석 9 :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끄럼 없는 사역자가 되라

어느 공동체에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에서 변화의 열매를 거두려면, 변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교두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뜩이나 변화를 싫어하는데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저지른 실수를 구실 삼아 변화 자체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간 교회의 재활성화를 추진해온 남 목사도 몇 차례 고비를 맞은 적이 있었다. 한번은 젊은이들의 선교여행을 지원해주는 문제로 당회에서 의논하다가 본의 아니게 한 장로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던진 때가 있었다. 남 목사는 다음날 곧바로 만나기를 거절하는 그 장로를 만나기 위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9시 반부터는 비가 내렸는데도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끄럼 없기를 소원한 남 목사는 결국 3시간을 기다린 끝에 화해하고 돌아왔다.

남 목사는 오스왈드 샌더스가 지은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가장 좋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독한다. 늘 자신의 목회가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 움직여지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에 의해 이끌림 받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잘못한 것은 빨리 고칠수록 이익이다. 못 고치는 이유는 고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면 더욱 잘못되게 된다.

정석 10 :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정석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빈 수레가 될 수밖에 없다. 주인이 도끼를 옆으로 제쳐두는 순간 도끼는 고철덩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나온 10년을 되돌아볼 때 남 목사가 철저하게 정도를 걸어오려고 애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역사는 다른 곳으로 흘렀을 것이다.

어느 정도 소그룹 지도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현장 전문가' 로 거듭날 수 있었던 물통전도의 길이 열린 것을 비롯해, 사역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주셨다.

특별히 철저히 사람들을 세워 성장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을 때, 시작한 교회당 건축공사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 IMF 때보다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교회건축은 건축예산과 재정적 현실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헐떡이며 메워야 하는 책임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런 간격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훈련된 평신도들의 헌신으로 채워가고 있다.

일찍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본인도 극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예수를 믿고 회복된 일본의 우스끼 집사는 장충교회의 단기 선교팀과의 만남 이후 계속 교제해 왔다. 그러던 중 남 목사의 두 팔 벌려 기도하는 환상을 보고, 건축에 관해 알게 되어 본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음에도 만기가 된 적금 100만 엔(천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보내왔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비로소 신앙에 눈을 떴다는 한 성도는 "이젠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라고 고백하며 5천만 원을 드렸으며, 중한 질병에서 건짐 받은 한 성도는 "다시 살려주신 목숨 주님께 남은 생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1억 5천만 원을 드리기도 했다. 한 무의탁 노인은 "받은 은혜 보답할 길이 없으니, 죽거든 처분해 달라"며 자신의 몸을 누이는 조그만 방의 계약서를 드리기도 했다.

헬스장을 다니던 청년부의 한 자매는 조깅으로 바꾸고 헬스비용으로 지불하던 돈을 헌금했다. 살고 있는 연립주택 청소용역을 맡은 한 사모는 "오랜만에 해보는 아르바이트네요"라며 미소 짓기도 했다. 교회 건축 소식에 "교회를 떠나자"는 남편에게 "건축 헌금하기 싫어 떠났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며 자리를 지키는 성도도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동일한 금액' 을 부담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동일한 헌신' 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번 강산이 변할 10년을 기대하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소박한 신념과 "정석대로 하면 된다"는 열정과 의지가 강산도 변할 세월이 흐르면서 240명의 헌신된 일꾼들을 세웠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데 더 헌신했던 장충교회가 이제 향후 3년간 무형의 교회를 담아낼 유형교회를 변화시킬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가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해온 일들은 제자훈련을 하고, 순모임을 위주로 한 소그룹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봉사보다 훈련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이제 교회당을 짓고 나면 밖으로 눈을 돌려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소외된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죠.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활동이 활발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 여건이 갖추어지는 만큼,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향한 문화사역도 본격적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성장을 소화해낼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장충교회가 앞으로 달려갈 10년이 기대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성교회들이 보고 따라가야 할 너무나 소중한 재활성화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앞서가는 사람 없이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은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러기에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장충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행복한 목회자와 함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고 꿈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박주성 목사〉